

祝 辭

2015. 12. 22. (火), 15:00~15:30

NH 농협은행 본점 회의장(신관 3층)

금융위원회 위원장
임 종 룡

I. 인사말씀

여러분, 반갑습니다.
금융위원회 위원장 임종룡입니다.

연말을 맞아 바쁘신 와중에도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수상자와 내외 귀빈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올 한해 '서민금융'에 정책 역점을 두고,
전통시장 및 유관기관 방문,
대전·광주 통합지원센터 개소식 등을 통해
서민금융 현장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가지려고 하였습니다.

특히, 오늘 「서민금융의 날」을 통해
일선에서 사명감으로 묵묵히 소임을 다해 주신
'서민금융의 매신저' 여러분들을 직접 뵙고
격려하는 자리를 갖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이 자리의 주인공이신 수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II. 올해 서민금융의 발자취

지난 6월, '서민금융 지원 강화 방안' 발표와 함께,
정부는 금융개혁의 한 축으로서
서민금융에 정책적 우선순위를 두고
세부 대책을 속도감있게 추진해 왔습니다.

저신용·저소득층의 금융애로 해소를 위하여
햇살론 등 정책 서민자금 공급을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주거·노후 대비 등 서민층의 생활 안정과
자활·재기 지원을 한층 강화하기 위하여
정교한 맞춤형 상품 출시 노력도 지속하였습니다.

아울러, 수요자가 한 번의 종합상담을 통해
자금지원, 채무조정, 고용·복지 서비스까지
원스톱으로 편리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부천에 이어
대전·광주에 순차적으로 개소한 바 있습니다.

최근 들어, 이러한 노력의 성과가 가시화되는 등
서민금융의 溫氣가 점차 확산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금년 중 정책 서민자금은
총 47만명에 대해, 약 4.7조원이 지원되어
역대 최고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방안 발표 이후 5개월 남짓한 기간 동안,
채무조정 성실상환자에 대한
소액카드 발급은 12,000건을 넘어섰으며,
총 7,600명의 정책자금 이용자에 대하여
의료비 등 긴급생계자금(270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서민의 자활·재기 지원을 위한
드림셋, 미소드림적금, 저소득층 실버보험 등
맞춤형 상품도 당초 예정대로 출시되었습니다.

이렇듯, 서민금융 대책이 차질없이 이행된 것은
여기 자리하신 지자체, 금융회사, 유관기관 간의
긴밀한 협업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햇살론 보증재원 조성을 위한 저축은행업권,
농협 등 상호금융업권의 적극적인 협조와,
'서민금융 신상품 3종 세트' 출시를 위한
미소금융·은행·보험권의 열정과 노력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Ⅲ. 향후 서민금융 정책방향

여러분,
올 한해 서민금융의 경험과 성과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서민들이 보다 체감하실 수 있도록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저소득·저신용 서민의 금융부담이
보다 경감될 수 있도록
정책 서민자금의 공급규모를
연간 5.7조원 수준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채무조정 시스템'도 전면 개편하여,
연체가 최소화되도록 선제적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불가피하게 연체가 발생된 경우에는
상환능력에 따라 신속하게
신용회복을 지원받으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무엇보다 이 모든 서민금융 지원방안이
수요자에게 보다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맞춤형 원스톱 서민금융 지원체계로서
'서민금융진흥원'이 조속히 설립되어야 합니다.

특히, 「대부업법」 개정으로
내년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인하될 경우,
저신용층에 대한 자금공급이
축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취약계층의 금융애로가 최소화되도록
진흥원 설립을 통한 자금지원 확대 등
보완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구체적으로, 진흥원이 설립될 경우,
신복위 등 유관기관 지역 본부를 활용하여
단기간 내 32개 통합지원센터 구축이 가능합니다.

자금지원이 30%, 채무조정은 11% 각각 증가한
'부천 통합지원센터' 사례를 볼 때,
전국 32개 서민금융 지원망을 통해
취약계층에 대한 종합적 지원이 대폭 증가하는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를 위해, 「서민금융생활지원법」이
국회에서 빠른 시일내 입법화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입니다.

IV. 맺음말씀

여러분,
금융개혁을 통해서
정부가 가장 잘 하고,
가장 발전시키고 싶은 부분이
바로 '서민금융'입니다.

서민금융은
취약계층에 대해 금융 문턱을 낮추고,
자활·재기에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는
'따뜻한 금융'의 출발점입니다.

앞으로도 서민금융의 溫氣가
사회 구석구석까지 전달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 금융권, 지자체가 한 마음으로
함께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남은 한 해 잘 마무리 하시고,
여러분 모두가 활기하고 희망찬
새해(丙申年)를 맞이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상기 자료는 보도의 편의를 위해 제공해 드리는 것으로서
실제 내용은 동 자료와 다를 수 있음을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